

S#1. 강가/늦은 오후

해가 질 무렵, 노을이 물들기 직전의 하늘. 소민은 이어폰을 끼고선 눈이 퉁퉁 부은 채로 터벽터벽 강가를 거닐고 있다.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백팩은 고3 수험생의 가방과 같이 무거워 보인다. 노을이 내려앉은 붉은 강가가 잠시 비춰진 후, 강가의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고개를 감싼 채 흐느끼고 있는 소민이 보인다.

S#2. 카페/늦은 오후

해가 질 무렵, 노을이 물들기 직전의 하늘이 보이는 카페의 창가에 민지가 앉아 있다. 무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뺀히 내려다보다 창을 끄고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는 민지. 왈각 차오르는 눈물이 그녀의 눈을 넘어서 똑똑 떨어진다. 그녀는 고개를 서서히 떨어뜨리며, 창밖의 노을을 마주한 채 울음을 터뜨린다. 들쭉이는 그녀의 뒷모습으로부터 멀어지는 화면.

S#3. 학교/늦은 오후

해가 질 무렵, 노을이 물들기 직전의 하늘. 교내 벤치에 지우와 그의 여자친구가 앉아 있다. 부유하면서도 단아한 자태를 띄는 여자친구에 비해 그의 행색은 조금 단출하다. 그의 여자친구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어 토닥이고, 지우는 그러한 그녀에게로 시선을 올리며 입가에 아주 얇은 미소를 보인다. 여자친구는 지우를 따스하게 안아주지만, 그녀의 품에 안긴 지우는 애써 지은 미소를 거두며 다시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린다.

지우의 떨어지는 시선을 담은 후, 화면은 여자친구의 등을 거쳐 그들이 앉아 있는 벤치로 함께 떨어진다. 해당 화면에 제목 자막(Moratorium)이 나타난 후, Fade-out.

S#4. 밤거리/밤

Fade-in.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자가 한쪽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급히 원룸 건물을 뛰쳐나온다. 그러다 골목 사이의 한 담벼락 뒤로 숨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건다.

여자 (숨을 가쁘게 내쉬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S#5. 진술 녹화실/현재

진술 녹화실, 소민이 자리에 앉아 있다. 탁자 쪽으로 시선을 떨군 채 앉아 있는 그녀,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S#6. 진술 녹화실/현재

다른 시간대의 진술 녹화실,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는 민지. 구도상 가능한 폴샷으로부터 서서히 그녀가 Zoom-in 된다.

S#7. 진술 녹화실/현재

진술 녹화실. 앉아 있는 지우, 핏기 없이 수척한 행색으로 탁자 쪽으로 시선을 떨군 채 앉아 있다.

잠시 뒤. 형사, 문을 열고 들어온다.

S#8. 진술 녹화실/현재

어딘가 공허한 눈빛의 지우, 천천히 진술을 이어간다.

지우 6년 전, 엄마가 죽었습니다. (사이) 집에 빛이 많았거든요.

지우 참 웃긴 게, 하나밖에 없는 부모가 죽었는데도.. 살게 되더라고요.

지우 (고개를 떨어뜨리며) 어찌면 조금은.. 자유로워진 것 같기도 했어요.

지우 그렇게 저 혼자 평범한 삶을 꿈꾸며 달려오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세상은 온통 부조리로 가득하고, 막상 앞에 닥친 부조리함을 견뎌내면 또 다른 무언가가 제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이요.

S#9. 면접장 건물/오후

이른 오후 시간대. 지우는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에 단정한 양복을 입고, 한 건물에서 걸어 나온다. 건물의 출입구 유리문에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장 →'라는 문구가 프린터 된 종이가 붙어있다.

건물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이 무겁다. 축 처진 어깨로 걸어가던 그는 이내 잠시 멈춰 서 큰 한숨을 내쉬고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편의점으로 향한다.

S#10. 편의점/늦은 오후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지우, 편의점 조끼를 입은 채 외부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다. 그는 짙은 태도로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며 카운터로 자리를 옮긴다.

S#11. 밤거리(귀갓길)/밤

어두운 밤길, 집으로 돌아가던 지우는 울리는 알림음에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춰 휴대전화의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리고서는 휴대전화를 이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후, 귀찮은 생각에 잠긴 듯 어둠 속으로 걸어간다.

S#12. 지우의 집/밤

집에 도착한 지우, 침대에 걸쳐 앉아 다시 휴대전화를 든다. 다시금 휴대전화의 화면을 확인한 그는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편의점 사장 역은 목소리만 출연)

지우 여보세요? 삼촌 저 지우인데요.

사장 어, 그래.

지우 보내주신 월급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요.

사장 (잠시 말을 멈춘 후) 아~ 그거? (사이) 우리 편의점 일, 해보니까 어때?

지우 네?

사장 (능청맞은 말투로) 아니 툭 까놓고 우리 편의점만큼 쉬운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 쉽지 않잖아~ 시간대도 좋고..

잠시 정적이 흐른다.

사장 우리 가게는 크기도 작고, 손님들도 적은 편이고. 뭐 보통.. 담배 같은 걸 사면 그래도 남는 게 좀 있는데, 교통카드 이런 건 남는 게 없어~ 내가 촌수는 멀어도 친척이니까 이만한 자리 내주는 거지~

지우 그럼 최저 시급은 안 주시겠다는 건가요?

사장 (한숨을 크게 내신 후) 하여간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된다니까. (이후, 비꼬는 말투로) 애미 애비도 없는 것 기껏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요즘 놈들한테선 아주 절실함이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 때는 말이야 ~ (주절주절)

지우, 이를 딱 깨문 후 손으로 이마를 감싸 짙는다.

S#13. 진술 녹화실/현재

지우, 진술을 이어간다.

지우 어찌면 제가 평범한 삶을 꿈꾸는 게, 감히 이뤄지지도 못할 허상을 좇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존재하지 않기에 더욱 선명해지는 어떤 것들처럼요.

지우 처음엔 책잡히지 않으려 남들보다 두 세배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밀려오는 부정적인 상황들에 너무 서러워서.. 핏김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우, 잠시 생각에 잠긴다.

지우 지금 생각해 보면.. 애꿎은 화풀이였지만요.

S#14. 진술 녹화실/현재

민지, 진술을 이어간다.

민지 형사님. 형사님께서서는 주어진 현실을 바꿀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형사, 민지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다.

민지 (시선을 떨어뜨리며) 저는 바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S#15. 카페/오전

조금 늦은 오전 시간대. 카페에서 과제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던 민지는 메시지 알람 소리에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Web 발신]

안녕하세요! 00 서포터즈 담당자입니다.

신청서에서 지원자님의 능력은 높이 평가되었으나, 제한된 선발 인원 등의 사유로 면접 전형에 모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지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 그녀의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 온다. 민지는 잠시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은 후 전화를 받는다.

민지 여보세요?

남친 (격양된 목소리로) 민지야! 서포터즈 합격 발표 문자 왔는데, 확인했어?

민지 (잠시 멈칫한 후) 아니 아직. 벌써 왔어?

남친 응! 빨리 확인해봐.

민지 (힘없는 목소리로) 응.. 하던 과제만 끝내고 확인해볼게.

전화를 끊은 뒤, 한숨을 쉬며 다시 레포트 과제를 이어가려는 민지. 하지만, 이내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거칠게 덮는다.

S#16. 진술 녹화실/현재

민지, 진술을 이어간다.

민지 다른 사람도 아닌 남자친구가 매사 저를 초라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정말 좋아했지만, 항상 함께 하는데도 홀로 좋은 성과를 내는 그 친구를.. 정말 질투하고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날따라 더 화가 났었어요.

S#17. 카페/오후

민지, 카페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며 앉아 있다.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는 그녀의 기분은 좋지 않아 보인다. 그녀의 남자친구가 음료를 들고 와 맞은 편에 앉는다.

남친 너무 상심하지 마. 또 같이 공부해보자. 서포터즈야 또 지원해보면 되지.

민지 (한숨을 내쉬 후) 뭐가 문제였을까. 왜 맨날 나만..

남친 (눈치를 보며) 이번엔 운이 안 따랐나 봐.

민지 (발끈하며) 이번엔? 이번에 '도' 아니고? 난 대체 언제 운이 따를까? (비꼬는 듯한 말투로) 그래, 남들 다 되는 이깟 서포터즈 조차도 난 운이 없어서 떨어진 거네.

남친 그렇게 말하지 말랬지.

민지 또 너만 붙었잖아. 이것도 운 때문이야? 아무리 해봤자 난 안돼. 항상 그랬어. 입시 때도, 교환학생 때도.. 지난, 지지난 공모전 때도. 대체 난 언제까지 운이 안 따를까?

남친 민지야.

민지 (남자친구의 말을 끊으며) 내가 누구보다 노력했던 거 넌 알잖아. 왜 넌 되고 난 항상 안되는 거야?

남자친구도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이내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남친 내가 도와줄게.

민지 (잡은 손을 뿌리치며) 도와줘봤자 안돼. 난 그냥 이정도 밖에 안되는 사람인 거야. 이게 현실이야, 네 현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아, 학교가 별로라 그런가? 그래, 내가 뭘 하겠니? 넌 내 맘 이해 못해.

남친 내가 몇 번이고 얘기했지? 그런 거 아니라고.

민지 그럼 뭘데?

둘 사이, 잠시 정적이 흐른다.

남친 하.. 그래. 그럼 넌 그렇게 평생 세상 닳하면서 살아.

남자친구,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간다.

S#18. 카페/오후

늦은 오후. 남자친구가 가고선 홀로 리포트 과제를 작성하고 있던 민지는 울리는 메시지 알림음에 잠시 타자 치기를 멈춘 뒤,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남자친구에게서 온 장문의 메시지. 메시지 미리보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S#2 직전의 내용)

‘우리 헤어지자.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기가 나도 버거워.’

Track out.

S#19. 진술 녹화실/현재

소민, 진술을 시작한다.

소민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기가 버거워서 그랬어요. 저는 항상 겁쟁이 취급을 받았거든요..

S#20. 도서관/밤

자정에 가까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소민은 넓은 열람실에서 홀로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러다 문제집 위로 떨어지는 코피. 그녀는 대수롭지 않은 듯 고개를 뒤로 젖히고선 화장실로 향한다.

소민은 다시 자리에 돌아와 문제집을 덮고선 집으로 갈 채비를 한다. 그녀가 덮은 문제집은 다름 아닌 수능 특강 문제집이다.

S#21. 진술 녹화실/현재

소민, 진술을 이어간다.

소민 목표했던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죄인이 된 것만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른 사람 탓을 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못한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무작정 다시 수능 공부를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소민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끝없는 긴장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하는 두려움이 물밀듯이 솟구쳤어요. 하지만, 대체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이 불편한 자유가 대뜸 주어진 상황에서 제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는 더욱 모르겠더라고요. 무섭고, 답답했어요.

소민 그러던 와중,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S#22. 강가/오후

답답한 마음에 강가를 거닐고 있던 소민, 그때 그녀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 온다. 휴대전화의 화면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곧 다시 전화가 걸려 온다. 소민은 잠시 고민한 후, 걸려 오는 전화를 받는다. (S#1 직전의 내용/*엄마 역은 목소리만 출연)

소민 여보세요.

엄마 어디니?

소민 그냥.. 잠깐 걷고 있어.

엄마 (한숨을 내쉬 후) 밥은 먹었고?

소민 응.

엄마 공부는?

소민 (한숨을 쉬며) 하.. 알아서 하고 있어.

엄마 네 동생 오늘 한국대 붙었어.

소민 (사이) 그렇구나. 축하한다고 전해줘.

엄마 (사이) 할 말이 그것밖에 없니? 너 지난 모의고사 성적은 어떻게 나왔어?

소민, 대답을 하지 않는다.

엄마 됐다, 됐어. 면접도 무섭다고 안 보려 간 애한테 내가 뭘 바라겠니. 네 동생 좀 보고 배워. 엄마, 아빠, 동생 다 가는 학교를 대체 넌 뭐가 부족해서 그러고 있니? 까놓고 말해서 지금 니가 한가하게 강가나 걸을 때야? 동생 보기 부끄럽지는 않니?

S#23. 진술 녹화실/현재

소민, 진술을 이어간다.

소민 (울컥하며) 화가 났어요.. 저도 모르는 저를 수없이 부정당했던 그 시간들에 화가 났어요. 그냥.. 제가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린 채 부정당하는 것만 같았어요.

소민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서 그랬어요. 이 지긋지긋한 부정 속에 떨며 살기 싫어서.. 초라하지 않은 나를.. 찾고 싶었어요..

소민,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낀다.

S#24. 진술 녹화실/현재

민지, 진술을 이어간다.

민지 정작 저를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건 제 자신이었는데 말이죠.

S#25. 진술 녹화실/현재

지우, 진술을 이어간다.

지우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던 최종 면접이었거든요. 사실 면접에서 실수를 한 것에서도 그렇게 느꼈지만, 저에겐 두 번의 기회라는 게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제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지우 더 이상 노력할 힘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건 둘째치고, 상황적인 여력도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부터 드는 게 참..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지우 그래서인지 그날은 여자친구의 위로에 오히려 반감이 생겼어요.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만, 난 아난데..’하는 어딘가 억울한 마음이 솟아올랐죠. 그런데 저는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이런 자격지심을 가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방법이지만.. 충동적으로 그러한 감정으로부터, 제가 처한 이 상황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S#26. 학교/늦은 오후 (=S#23)

해가 질 무렵, 노을이 물들기 직전의 하늘. 교내 벤치에 지우와 그의 여자친구가 앉아 있다. 부유하면서도 단아한 자태를 띄는 여자친구에 비해 그의 행색은 조금 단출하다. 그의 여자친구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어 토닥이고, 지우는 그러한 그녀에게로 시선을 올리며 입가에 아주 얇은 미소를 보인다. 여자친구는 지우를 따스하게 안아주지만, 그녀의 품에 안긴 지우는 애써 지은 미소를 거두며 다시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린다.

지우의 떨어지는 시선을 담은 후, 화면은 여자친구의 등을 거쳐 그들이 앉아 있는 벤치로 함께 떨어진다.

S#27. 진술 녹화실/현재

지우, 진술을 이어간다.

지우 자살은 허망함을 깨닫게 된 후에야 할 수 있는 주체적 선택이라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 그러신 것처럼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평등해요. 그리고 그렇게 평등한 만큼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죠. 그저..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서야 진정한 저를 동정 어린 시선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S#28. 진술 녹화실/오후

민지, 진술을 이어간다.

민지 인생에도 신호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가야 할 때, 지금은 잠시 쉬어가야 할 때.. 뭐 그런? 이왕이면 시간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신호등 아래의 초처럼. (사이) 그러면 저도, 제 주변의 사람들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모두의 시간이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요.

민지 꼭 지금 당장 주어진 기대에 부응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제게 생각보다 많은 기대만 해왔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사이) 그런데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S#29. 밤거리/밤 (=S#4)

소민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건다.

소민 (숨을 가쁘게 내쉬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S#30. 진술 녹화실/오후

소민, 진술을 이어간다.

소민 저는 늘 제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 그저 그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이) 형사님께서도 절 겁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S#31. 경찰서 안/현재/밤

경비로 보이는 인물이 손전등을 들고 경찰서 내의 어두운 장소(내/외부 모두 가능. 단, 칠흠 같이 어두워야 함.)을 돌며 순찰을 한다. 그러다 카메라를 발견한 경찰, 손전등을 카메라 쪽으로 비추며 끝이 난다.